



즉시 배포용: 2018 년 1 월 2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에 포함된 새로운 벌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에 대해 발표

뉴욕의 홈 메이드 수제 음료 산업 발전을 유지하게 될 제안

뉴욕에서 생산한 꿀에 대한 수요 증진의 원동력이 될 면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 회계연도 예산(Fiscal Year 2019 Budget)에 벌꿀술 농원 양조장을 위해 와인 농원 양조장, 맥주 농원 양조장, 증류주 농원 양조장, 사과주 농원 양조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새로운 면허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니 와인(honey wine)”이라고 불리는 벌꿀술은 과일, 향신료, 허브, 꽃이 섞인 물로 꿀을 발효시켜 만들어지는 알코올 음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노스이스트에서 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농원에서 벌꿀술을 생산할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번창하는 수제 음료 제조 부문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벌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의 신설은 두가지의 이 위대한 뉴욕 산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위대한 주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우리의 관광산업 경제에 편입될 것입니다.”

이 벌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는 뉴욕주에서 생산된 벌꿀로 제조한 벌꿀술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벌꿀술 농원 양조장의 설립 및 허가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또한 벌꿀술 농원 양조장이 맥아, 홉, 과일, 향신료, 허브, 기타 농산물 이외에 꿀을 사용하여 만든 맥아 음료인 “브래جت(braggot)”의 생산을 허용합니다. 벌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를 취득하려면 벌꿀술 또는 브래جت(braggot)은 뉴욕주에서 생산된 벌꿀을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량은 연간 25 만 갤런 미만이어야 합니다. 벌꿀술 농원 양조장은 유리 잔으로 판매할 수 있고 시음을 제안할 수 있으며 벌꿀술과 브래جت(braggot)뿐만 아니라 뉴욕주 농원에서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뉴욕 농원 면허와 마찬가지로, 벌꿀술 농원 양조장은 기존 도매 업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벌꿀술 농원 양조장은 또한 레스토랑과 선물 가게를 열 수 있으며 뉴욕주 내 어디에서나 수수료를 내지 않고 5 곳의 오프 사이트 지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생산한 발효 사과주와 마찬가지로, 뉴욕 벌꿀술은 술과 와인 상점뿐만 아니라 식료품점에서도 판매될 것입니다. 새 면허의 연간 면허비는 75 달러입니다. 현재 농원과 상업적 와인 양조장에만 반드시 위치해야 하는 농원 와인 양조장만 면허비와 채권 수수료로 3,025 달러를 내고 벌꿀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제 음료 제조 업계에서 가장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벌꿀술 또한 가장 빠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벌꿀술 생산자 협회(American Mead Makers Association)가 집계한 2017 년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벌꿀술 양조장 수는 2003 년의 30 곳에서 2016 년 초 300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서 번창하는 수제 음료 분야를 강화하는 일 이외에도, 벌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의 신설로 뉴욕의 벌꿀 생산 지원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뉴욕은 노스이스트 지역에서 벌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5 년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벌꿀 생산의 총 가치는 2015 년보다 100 만 달러 이상 증가하여 2016 년에는 약 1,200 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2011 년에 비하면 600 만 달러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5 개 이상의 콜로니를 가진 양봉가의 경우 뉴욕의 벌꿀 생산량은 2011 년의 274 만 파운드에서 2016 년에는 365 만 파운드로 33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과, 체리, 블루 베리, 호박, 단호박, 기타 작물 등은 매년 오 억 달러 규모의 농작물의 꽃가루를 수분하는 뉴욕의 꿀벌과 함께 꽃가루 매개체의 존재에 크게 의존합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면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농업, 수제 음료 관광 산업 경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많은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벌꿀 생산과 수제 음료 제조가 그 중의 두가지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을 함께 모으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맥주, 와인, 증류주, 사과주 생산의 호황에서 보는 것처럼, 최고 품질의 신선한 재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자는 현지 농원에서 이러한 재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농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제 음료 제조 면허의 신설을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재배자와 제조업체 사이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면허는 이러한 연결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꿀술은 수제 음료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님의 이 새로운 면허에 대한 제안을 통해 이 성장과 현지 공급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수제 음료 제조업체와 벌꿀 생산업체는 자신들의 사업에 가치를 부여하여 이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뉴욕의 선도 산업은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유형의 상생 정책을 가진 산업입니다. 이 새로운 면허는 성공적인 벌꿀 생산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수제 음료 업계에는 고객이 찾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선택 사양을 제공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새로운 관광 시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 농업과 뉴욕주 경제의 미래를 전체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문화부, 관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의 의장인 Rich Funk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관광위원회(Senate Tourism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뉴욕 바로 여기에서 수제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든 뉴욕주 고용의 8.3 퍼센트는 관광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여행자 지출이 2.7 퍼센트의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수제 음료 산업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관광 분야의 지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모든 수제 음료의 경기장 수준을 높이는 제안을 지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William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는 성장하는 관광산업 경제와 번창하는 수제 음료 트레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뉴욕 양봉가를 위한 새롭고 흥분되는 시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관광, 공원, 예술 및 스포츠 발전 입법위원회(Committee on Tourism, Parks, Arts and Sports Development)의 위원장인 Daniel J.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의 신설은 뉴욕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존중받고 있는 농원 와인과 농원 사과주의 레퍼토리에 편입되는 놀라운 추가 사항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 예술 관광위원회(Arts and Tourism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 면허가 뉴욕주 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매우 상기되어 있습니다. 벌꿀술 생산은 경제 상승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양봉장을 만들고 확장하는 데 인센티브를 추가함으로써, 꿀벌이 위협에 처해 있는 시기에 농업 생산과 생태계에 매우 유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꿀벌술 한 잔의 건배를 제안합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트 파운데이션(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의 Sam Fill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의 수제 음료 산업은 뉴욕주 전 지역의 와인 농원 양조장, 맥주 농원 양조장, 사과주 농원 양조장 등을 지원하면서 역사적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벌꿀술 농원 양조장 면허가 추가됨으로써, 주지사님은 다시 한 번 확장과 성장을 위해 장벽을 옮겼으며, 이 번창하고 있는 분야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최고의 수제 음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주 맥주 양조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의 Paul Leon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제 음료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의 농업 기반 수제 음료의 늘어나는 목록에 벌꿀술 농원 양조장의 브래جت(braggot)과 벌꿀술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현재의 모든 농원 기반 면허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전체 수제 음료 산업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제품을 추가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현지 생산 수제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제 음료 제조업체를 보다 쉽게 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련의 입법 및 정책 변경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선 사항에는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연구 지원, 새로운 맥주 농원 양조장 및 사과주 농원 양조장 면허 마련, 제한적 규제 폐지, 면허 취득 소요 시간 단축, 뉴욕주의 옛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2012년 주지사의 첫 번째 와인, 맥주, 증류주 서밋(Wine, Beer and Spirits Summit) 이후, 이러한 개혁으로 농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이 2012년의 282 곳에서 194 곳의 맥주 농원 양조장과 42 곳의 사과주 농원 양조장을 포함하여 현재 703 곳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농원 수제 음료 제조업체들의 수가 150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